■ '3지대 신당' 창당 준비위 출범 초기부터 엇박자

시민사회·정파간 지분 다툼

당직 배분 의견 충돌… 27일 광주 창당대회 등 '초고속 창당' 착수

범여권 제3지대 신당인 가칭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이 26일 서울시당과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 일정에 착수함에 따라 이 공간을 활용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유세대결도 신호탄을 올렸다. 27일에는 광주와 전남·북도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등 다음달 5일까지 창당작업을 마무리하는 '초고속 창당'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시내 백범기념관에서 당원 9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울시당 창당대회 역시 25분만에 창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창당준비위원장 인사말과 대선주자들의 연설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선주자 축사에는 손학규 전 지사, 정동영 전 의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전 장관과 열린우리당 사수파로 꼽혔던 신기남 전 우리당 의장이 참석, 본격적인 유세 대결을 벌였다.

그러나 신당은 출범 초기부터 지분문제로 불협화음을 빚었다. 창준위의 창당 추진과정에서 정파 간 지분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시민사회와 범여 4개 정파가 일대일 배분방식으로 창당작업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상임중앙위원 및 당직자 인선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0명 규모로 꾸려지는 상임중앙위는 전당대회를 제외하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는 기구. 25일 밤 개최된 창준위 회의에서는 상임중앙위의 50%를 가져가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는 공동창준위와 중앙위 구성을 일대일로 하자고 한만큼 상임중앙위도 같은 비율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성 정치권은 현실적인 세력 분포로 볼 때 상임중앙위까지 일대일 비율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당직 인선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실무당직자가 아닌 고위직 당직자도 일대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반면 정치권 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도당 창당작업을 놓고도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광주시당의 경우 김영진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나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병문 의원, 임현모 광주교육대 총장, 박형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 등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단일지도체제로 모양을 바꿨다.

심지어 시민사회에서 회계책임자까지 공동으로 두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창준위 내 마찰음은 창준위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는 시각이다. 5개 정파가 뚜렷한 리더없이 대선 승리를 위한 '반(反) 한나라당 전선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뭉쳤지만 이념과 성향상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순형 대선서 '캐스팅보트' 쥘까

민주당 독자후보론 탄력…범여 통합논의 변수될듯

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순형〈사진〉 통합민주당 의원이 범여권 대통합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한 CBS-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2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조 의원이 '범여권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0.2%를 얻어 손학규 전 경기지사(35.3%)에 이어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도 전에 범여권 대선 주자인 이해찬(6.9%), 유시민(6.2%), 한명숙(4.8%) 정동영(4.5%)을 제친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열린우리당 해체 없이는 제3지대 대통합 신당 참여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의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다.

조 의원의 지지율이 조만간 20% 선을 넘어설 것이며 이는 그동안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다는 점에서 불임정당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던 통합민주당의 주가를 높이는 것은 물론 범여권 대통합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역의원 숫자 등 규모 면에서 월등한 범여권 대통합 신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협상에서 조 의원의 지지율은 통합민주당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의원의 지지율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통합민주당이 대선 정국에서 대통합 신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을 것으로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에서는 조순형 대선 카드가 범여권 대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상천 대표와 조순형 대선 예비후보 체제의 통합민주당이 끝까지 대통합 신당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요구하며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순형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갖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제가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며 "참다운 중도개혁 대통합을 이뤄 대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조 의원은 또한 "저는 국회를 끝까지 지키는 것으로 정치인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지만 국가와 당이 처한 위기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지난 1960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선친(조병옥 박사)의 평생 염원인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유업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민주당 적자 후보론'을 내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전 총리 등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

지지자·대통합 신당 인사와 함께

26일 오후 영화 '화려한 휴가' 관람을 위해 광주 무등극장을 찾은 한명숙(맨 앞줄 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박광태 광주시장, 김홍업 의원이 내빈 소개를 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6일 대선 출마 이후 두 번째로 광주를 찾았다. 이번에는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한 직후여서 대통합 신당 인사들과 함께 단체 관람 행사도 가졌다.

이날 정오께 광주를 방문한 한 전 총리는 윤공희 대주교를 면담한 이후 광주지역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전 총리는 이어 오후 6시30분에는 광주 무등극장 내 한 상영관을 통째로 빌려, 통합민주당·열린우리당 출신의 대통합 그룹, 5월 어머니회,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단체 대표, 팬클럽인 '행복한 사람들' 인사들과 함께 영화 '화려한 휴가'를 관람했다.

이 단체 관람 행사에는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의원 등 대통합을 기치로 통합민주당을 탈당한 대통합파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친노그룹의 김형주 의원과 배기선·강기정·지병문 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 총리는 영화 관람 전 5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영화를 꼭 광주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며 "이 영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30대는 5·18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 영화를 통해 광주 역사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영화 관람 후 팬클럽 회원들과 호프 미팅을 가진 뒤 27일에는 미래창조연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 창당 행사에 잇따라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고립시켜선 안된다"

천정배 의원 "박상천 대표 대승적 결단" 촉구

범여권 대선 주자인 천정배〈사진〉 의원은 26일 제3지대 대통합신당과 관련, "통합민주당이 고립되는 방향으로 대통합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상천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이 잘했으면 왜 신당을 만들겠느냐"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국정 부진에 대한 반성과 이를 전제로 한 새출발로서의 신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레반에 의해 살해된 배형규 목사를 애도한 뒤 ""해외 파병은 평화유지라는 목표 아래 결정돼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올해 내로 철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통일·외교 3·3(한) 전략'을 발표하고 통일 분야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한민족 공동체 실현 ▲한반도 환경국가 건설, 외교 분야에서 ▲세계 10대 실력국가 건설 ▲문화·소프트파워 강국 건설 ▲품격국가 건설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이를 위한 구체적 중점 과제로 (북한에) 대담한 인도주의적 지원, 임기 내 제1세대 이산가족 상봉 완료, 해외유학생 1만명 국비 유치, 외교통상부 내 '동포영사본부' 설립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25일 광주에서 '화려한 휴가' 영화를 관람한 뒤 고향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낸 천 의원은 이날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FTA반대 범국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각각 가진 뒤 27일 광주와 전남에서 열릴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창당대회에 각각 참석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전 의원 "3지대 신당 국민참여 경선 통해 대선 도전"

강운태 전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제3지대 대통합 신당에 합류하면 자연스럽게 범여권 대선 예비주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또한, "해체 직전의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는 저를 두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권력을 쥐기 이전에 정치의 바른 길을 세우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범여권 대통합은 말 자체가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정치 체제가 집권하는 것이 역사의 대의에 맞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 전 의원의 입당 기자회견에는 친노 그룹의 대표 주자인 유시민 의원과 김원웅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